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19.12.02

1 추가 현황

	수익률(%)				P/E(x)		P/B(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1W	1M	3M	6M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KOSPI	-0.7	-0.6	6.0	2.3	14.7	14.7	0.9	0.9	2.2	2.2	<p>SK텔레콤 37.8% (Flat WoW, -0.2%p MoM) KT 48.3% (-0.2%pWoW, -0.4%p MoM) LGU+ 37.1% (-0.4%p WoW, -0.8%p MoM) LG유플러스 외국인지분율 대폭 하락 KT 역시 외국인지분율 하락 추세 지속</p>
통신업종	-1.0	3.2	1.9	-2.6	14.6	14.6	0.7	0.7	3.8	3.8	
SK텔레콤	0.6	4.2	2.7	-1.8	17.5	12.4	0.8	0.8	4.1	4.1	
KT	-1.5	1.3	-0.2	-3.6	10.4	9.0	0.5	0.5	4.1	4.2	
LG유플러스	-5.6	1.5	1.5	-3.9	13.6	11.8	0.8	0.8	3.0	3.1	
AT&T	-0.6	-4.0	6.0	22.2	10.5	10.3	1.4	1.4	5.5	5.6	
Verizon	1.1	-0.2	3.6	10.8	12.5	12.2	4.2	3.6	4.0	4.1	
T-Mobile	1.1	-4.8	0.6	7.0	19.5	16.1	2.4	2.1	0.6	3.6	
Sprint	5.2	-6.0	-12.8	-13.8	81.1	N/A	0.9	1.0	0.0	0.0	
NTT Docomo	0.4	-0.4	12.0	20.3	15.1	16.8	1.9	1.8	3.7	4.0	
KDDI	-0.6	3.3	10.7	12.6	12.3	11.6	1.8	1.7	3.2	3.5	
Softbank	2.4	1.5	-11.8	-17.0	7.4	10.1	1.4	1.1	0.5	1.0	
China Mobile	-3.8	-8.2	-9.2	-13.8	9.9	9.9	1.0	0.9	5.3	5.6	
China Unicom	-6.7	-13.9	-14.2	-19.0	14.4	11.2	0.6	0.5	2.7	3.6	
China Telecom	-3.6	-11.9	-15.7	-24.9	9.9	9.4	0.6	0.6	4.2	4.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11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0.3%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최근 주춤했던 외국인 매도세 재개로 KT와 LG유플러스 위주로 추가 하락
KT는 28일 기준 '올레tv 모바일'을 개편한 신규 OTT 플랫폼 '시즌(Seezn)' 발표
국내 기관은 통신3사 순매수, 외국인은 통신3사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11월 5G 가입자 추이에 주목
9월 이후 완화된 보조금 경쟁 속에서 5G 가입자 순증 규모 유지가 관건
최기영 과기부 장관의 5G 중저가 요금제 요구에도 통신사는 시기상조라는 의견 피력
연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통신주에 대한 배당 매력이 부각될 전망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4	25	26	27	28 KT 신규 OTT '시즌' 정식 출범	29	30
1	2	3	4	5	6	7

3 주간 뉴스

▶ KT, 신규 OTT '시즌' 발표... "초고화질 · 초고음질로 차별화" (연합뉴스)

- KT는 기존 '올레tv 모바일'을 개편한 OTT '시즌'을 발표. 4K UHD 고화질 및 저지연 중계가 강점
- AI를 이용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도 강화. CJ, SBS, JTBC와 협력 하에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 계획
- 차이나모바일 계열사 미구와 손을 잡고 양사의 콘텐츠를 교류. 내년에는 중국에 한류 콘텐츠 수출
- ⇒ KT는 웨이브, 티빙 등과 적대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 '오픈플랫폼'을 지향
- ⇒ CJ ENM과 JTBC가 합작 OTT를 준비하고 있는 등 신규 OTT 출시가 지속되며 OTT 경쟁 심화

▶ 정부 '5G 주파수' 2026년까지 감절 확대 (전자신문)

-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를 26년까지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
- 현재 2680MHz 폭 5G 주파수를 2021년 4550MHz, 2026년 5320MHz(고대역 4400MHz)으로 확대
- 5G와 결합 · 보조하는 비면허 기술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도 증가. IoT 주파수도 추가 공급
- ⇒ 스마트팩토리, 자율주행 등 B2B 사업의 개화를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 ⇒ LTE 주파수 일부를 조기 회수에 5G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통신업계는 반발 중

▶ 최기영 장관 "월 4만원 이하 5G 중저가 요금제 필요" (ChosunBiz)

- 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최기영 장관은 5G 저가 요금제는 월 4만원 대 이하로 생각한다고 설명
- 대용량 콘텐츠 활성화와 트래픽 급증으로 통신비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
- 실내망과 28GHz 망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 5G 품질을 제고하고 신서비스도 활성화하자고 제안
- ⇒ 5G 도입 초기이니만큼 규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 2020년 4월 통신 관련 공약에도 주목
- ⇒ 정부는 5G 세액공제 확대 노력 중. 이통사는 28GHz를 늦어도 내년 하반기 구축하겠다고 언급

▶ CJ헬로-KT, '알뜰폰 협정서' 재협의를 돌입... 방통위 재정신청 취하 (디지털데일리)

- KT, CJ헬로가 각각 알뜰폰 협정서 재정 신청 취하서를 제출. 방통위는 양사 재정신청 종결 보고
- 쟁점으로 떠오른 '사전동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협정서 최종내용에 대해 재협의하기로 결정
- 다음 단계로 협정서 최종문구 협의를 진행. KT망 알뜰폰 가입자보호, 영입기밀 유출방지도 논의
- ⇒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35조 (사유 발생시 1개월 후 계약해지 가능 조항)에 대한 보완도 권고
- ⇒ 가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의 논란은 일단락 되었으나, 추후 세부사항 협의도 주목할 필요

▶ 박정호 SKT, 아세안 정상들에 "콘텐츠 원팀 되자" 제안 (ZDNet Korea)

- 박정호 SKT 사장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류를 넘어서는 '아시아 무브먼트' 개념 제시
- 아시아 전체가 콘텐츠 연합을 만들자는 의견. 자본 투자 및 역량 교류, 스튜디오 설립 등을 제안
- 또한 5G를 통해 변화할 영역으로는 미디어 이외에도 AI, 무선망 기반 클라우드 게임 등을 제시
- ⇒ 타 미디어 사업자와 협력함으로써 콘텐츠 수급 개선. 디즈니 등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 기대
- ⇒ 한편, 박정호 사장은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연임 의지를 시사

▶ 태광그룹, 티브로드 이어 '티캐스트' 매각도 고민 (ZDNet Korea)

- 태광그룹은 최근 티브로드에 이어 '티캐스트' 매각을 염두에 두고, 이를 매입할 사업자를 물색 중
- 티캐스트는 스크린 · 씨네프 · FOX · 드라마큐브 · E채널 등 10여개의 채널을 보유한 PP 사업자
- 티브로드 절차가 완료된 이후 본격 나설 것으로 예측. 다만 콘텐츠 제작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
- ⇒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SK텔레콤 거론. 웨이브 등 미디어 산업 내에서 시너지 발생 가능할 전망
- ⇒ 유료방송 시장 내 인수합병을 통한 과점화 양상 지속. KT의 딜라이브 인수 여부도 주목할 이슈/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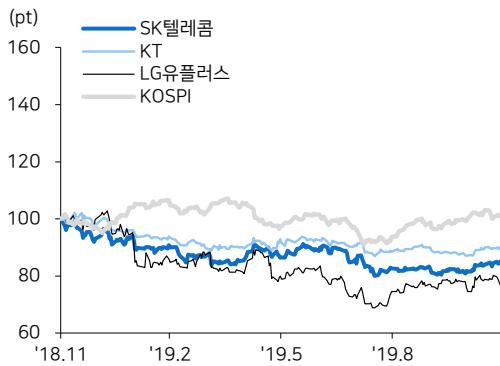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2019E	2020E	
한국	SK텔레콤	246,000	16.8	15.3	16.0	1.1	1.2	0.9	1.3	4.3	4.6	5.8	5.4	4.9	6.4
	KT	26,950	6.0	20.7	21.3	1.0	1.1	0.6	0.7	4.0	4.2	2.7	2.6	5.0	5.6
	LG유플러스	13,400	5.0	10.8	11.4	0.6	0.6	0.4	0.4	2.3	2.5	3.4	3.1	6.3	6.8
미국	AT&T	37.4	273.1	181.5	182.2	36.9	37.4	25.8	25.6	59.7	59.9	7.8	7.8	12.6	12.6
	Verizon	60.2	249.1	131.6	133.4	31.3	32.1	19.6	20.8	47.8	49.0	7.9	7.7	35.1	31.6
	T-Mobile	78.6	67.2	45.0	47.3	5.8	6.8	3.5	4.2	13.3	13.8	8.1	7.9	11.4	13.9
	Sprint	5.9	24.3	33.4	32.2	2.7	1.8	0.3	-0.5	12.6	11.1	5.1	5.9	1.2	-1.2
일본	NTT Docomo	3,003	91.6	43.2	42.3	9.0	7.8	6.2	5.4	13.7	13.2	6.5	7.0	12.6	11.1
	KDDI	3,139	67.6	46.5	47.5	9.2	9.4	5.6	5.8	14.4	15.6	5.6	5.2	15.5	14.7
	Softbank	4,253	81.2	86.2	88.6	16.5	8.8	10.8	9.3	27.6	24.4	8.0	9.1	14.6	13.3
중국	China Mobile	59.0	154.3	105.7	108.8	16.0	16.0	15.4	15.6	40.7	41.5	2.6	2.5	10.0	9.7
	China Unicom	6.7	26.2	41.4	43.4	2.0	2.7	1.8	2.3	13.3	14.0	2.0	1.9	4.0	5.2
	China Telecom	3.0	30.6	54.7	56.8	4.5	4.6	3.1	3.3	16.2	16.7	2.8	2.7	6.3	6.4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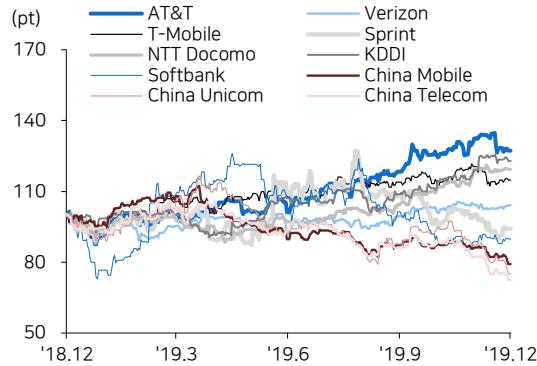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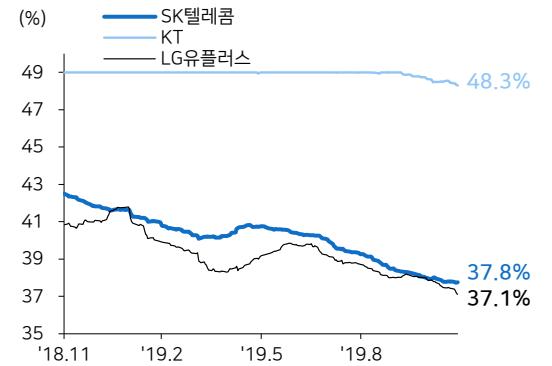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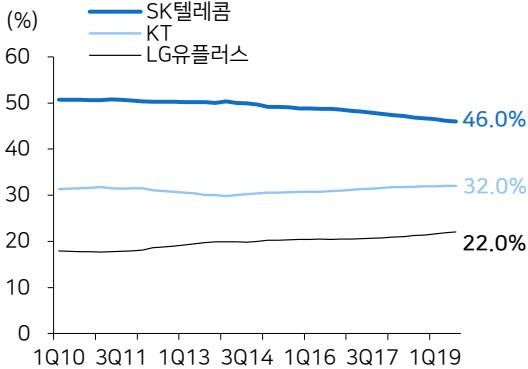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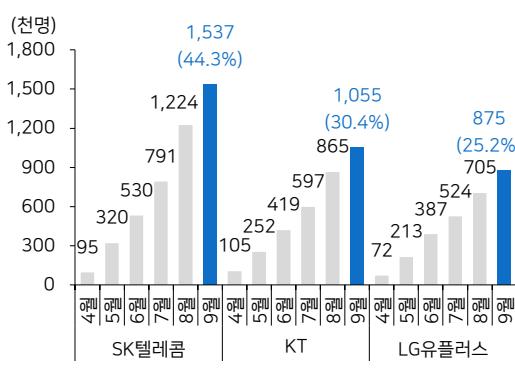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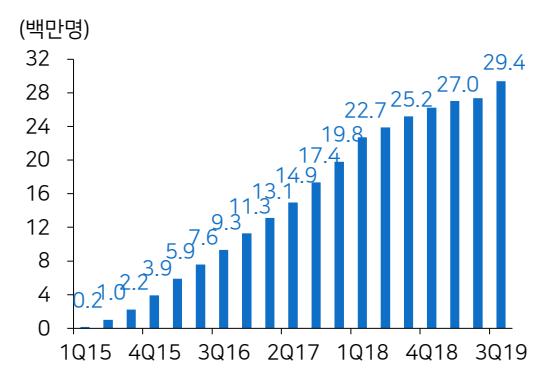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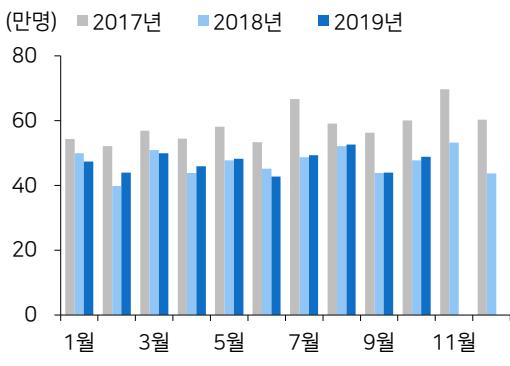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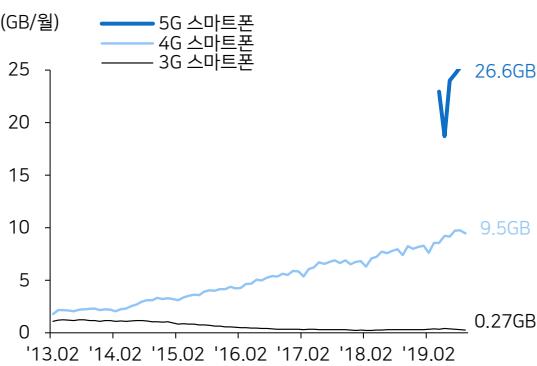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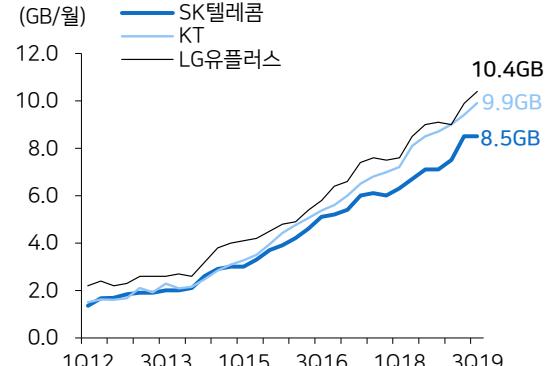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